

토론문

# 사회적경제 조직간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 계 석 품앗이생협 정책위원장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계석 (품앗이 생협 정책위원장)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분명 참신한 새로운 시도으로써 의미 있는 작업임이 분명하다. 특히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경제의 블록화 내지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의 제시와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혁신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그 시도만으로도 이미 매우 뜻 깊은 연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연구인만큼 이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연구의 관점이나 방법론 등에 대해 적절성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연구의 성과와는 달리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 ■ 연구의 관점과 방법에 대하여

우선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 간 거래 활성화”가 충남 사회적경제 블록화 내지 생태계 조성에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비중과 역할이 어떠한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으면 맥락을 이해하기가 더 쉬었을 것 같다. 또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판로 확보인데 실천적인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거래만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연구의 목적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때, 이번 연구는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거래 실태는 잘 분석하였지만,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거래 여건과 실태, 그리고 접근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물품 구입 조직이 2.7%, 상품과 서비스 조직이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고, 거래가 미약하고 일방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왜 그러한가는 설명이 부족하다. 보다 구조화되고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아직 하나의 생태계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보다는 개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도적 접근의 내용으로 연구에 나와 있는 일방적 거래방식에서 상호거래 방식, 또는 유사한 업종 간의 지속적 거래 경험 축적, 명확한 거래 목표 설정 등의 언급은 각각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특성을 살리지 못한, 일반적이고 평면적인 언급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직들이 사업 분야의 차이도 있지만 생산 조직과 서비스 조직, 그리고 유통 조직을 구분하여, 서로의 기능과 역할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며, 조건과 내용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지름길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마지막 문제는 지역의 범위 설정의 문제이다. 충남 전역을 놓고 거래, 협력을 논하다보니 일부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실제적인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범위는 인위적인 행정구역보다는 상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 거리, 그리고 사업적 연관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이나 원주의 사례들도 지역의 범위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충남으로 말하자면 시 군 단위 지역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로컬푸드를 보면 생산과 판매, 브랜드 공유 등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읍, 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리나, 동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연구는 충남을 하나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군 단위 별로, 아니면 최소한 충남을 연관성에 따라 몇 지역으로 나누어 권역화해서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홍성지역을 별도로 집중하여 조사 분석하긴 하였지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이나 중간 단계의 지역도 같이 조사하여 비교했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 실천적 제안

연구 논문에 이미 훌륭한 제안들이 많고, 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지만 두 가지만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띠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이다. 이 연구에서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율 규제 시스템 구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 규제시스템이 올바르게 정착될 때까지는 보다 적극적으로 품질에 대한 인증제를 구축하여 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제품의 품질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치의 제안 방식이자,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보내는 신뢰의 척도이다. 관계와 품질은 동일시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통시키기 어려운 품목들도 많다. 사회적경제 조직일수록 모든 어려움을 품질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품의 품질 기준은 먹거리의 경우 맛, 신선도, 안전성, 가격을 바탕으로 구매 편리성을 고려해야 하고, 공산품의 경우 이용 편리성(문화적 접근성), 가격, 디자인,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 브랜드화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브랜드화는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마을을 기본으로 가능한 한 지역의 범위를 작게 잡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는 판로의 확장이다. 충남은 가까운 곳에 대전이라는 큰 소비시장이 있다. 그런데 이 소비시장이 특히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방치되고 있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시장을 행정구역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대전에는 충남의 사회적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거래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다. 또 반대로 충남 내의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도 상호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든 조직들이 있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70%가 농산물 분야와 관련이 있다. 소비 도시인 대전은 충남 농산물의 주요 시장일 수밖에 없다. 즉 대전과 충남이 하나의 호혜시장이며,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충남은 이에 대한 판로 개척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충남 사회적경제의 인프라가 제아무리 잘 구축되어 있어도 소비시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거래 활성화만으로는 사회적경제 시장이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